

# ‘피카소 도예’ 작품 광주서 본다

ACC, 16일부터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예’ 국립현대미술관 기증 112점 중 107점 전시



‘큰 새와 검은 얼굴’

파블로 피카소(1881-1973)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입체파 화가다. 현대미술의 천재화가로도 불리는 그는 ‘아비뇰의 처녀들’, ‘게르니카’ 등 뛰어난 작품을 창작했다. 회화 외에도 조각을 비롯해 판화, 도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도예작품 ‘투우’는 스페인 출신인 피카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스페인의 영혼으로 불리는 투우는 그에게 근원과 같은 향수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 아홉 살 때 투우 그림을 그려 재능을 인정받았던 피카소는 당시 그림을 평생 간직했다는 일화가 있다.

피카소 도예 작품을 광주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화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이견희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을 오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연다.(복합전시 4관, 개막식은 16일 오후 2시)

이번 전시는 고(故) 이견희 회장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피카소 도자 112점 중 107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지금까지 이견희 컬렉션 가운데 근현대미술 거장의 작품들이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등에서 전시됐다. 또한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국보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백

자 청화 대나무 무늬 각병’ 등이 관객들을 맞을 바 있다.

이견희컬렉션 가운데 피카소의 도예 작품이 지역에서 전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견희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천재작가의 도예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에 이은 두 번째 순회 전시로 마련됐다.

이강현 전당장은 “20세기의 많은 미술가들은 피카소의 자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며 “이번 전시가 화가, 조각가, 작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천재적인 업적을 남겼던 피카소의 도예작품을 감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어린 시절부터 만만찮은 그림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그의 예술은 청색시대(1901년-1904년), 장밋빛 시대(1904년-1906년), 입체주의 시대(1907년-1916년)를 거치며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예술사를 갱신했다.



‘투우’



‘마스크를 쓴 얼굴’

이러한 결실의 토대는 도전과 실험정신이었다. 경계 너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예술정신이 있었기에 피카소의 작품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특히 4차원의 시공간 개념을 2차원 캔버스에 표현했던 입체주의 회화는 도자의 조형성과 만나 역동적인 변신을 하게 된다. 이에 경학에서는 “피카소는 도자를 하나의 캔버스로 상정해 자유롭게 변형시키면서 작품을 제작했다”며 “그 같은 발상과 시도는 도자가 실용성을 넘어 예술성을 부여 받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큰 새와 검은 얼굴’. 소재와 기법적인 면에서 눈길을 끄는 작품으로 율미미를 모티브로 했다. 알려진 대로 피카소는 비둘기와 카나리아를 집에서 키울 만큼 새를 좋아했는데 그리스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와 부엉이에 대한 애정이 깊었

다. 새 형상은 올빼미로 추정되고, 회색 가운데는 사람의 얼굴로 보인다. 손잡이는 새의 날개 이면서 사람의 팔로 구현됐다. 기존 회화 모양을 변형한 조형성과 전체적인 형상을 새롭게 연출한 입체성이 두드러진다.

또 다른 작품 ‘투우’는 극도의 긴장감이 팽배한 투우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붉은 색 접시 위에 표현된 투우사를 빨로 들어받는 소의 장면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준다. 피카소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찰나의 순간을 심미적인 시각으로 통찰했다.

도예 작품 107점 외에도 피카소가 직접 스케치한 포스터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관람 후에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풍류 정신’ 국악으로 풀어낸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13일 나뉘 국악콘텐츠제작소 출연

우리 전통음악에 깃들여 있는 ‘풍류 정신’을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토요일실공연 ‘풍류의 스펙트럼’을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선보인다.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대표 김현무)이 출연해 전통과 현대음악에 담긴 우리 고유의 ‘풍류 정신’을 국악 레퍼토리로 풀어낸다.

전통음악에 밴드 사운드를 더한 곡 ‘경공년’을 시작으로 ‘남원산성’, ‘태평가’ 등이 울려 퍼진다. 해금·장구 연주는 김단비, 생황·태평 소 등은 장유진이 맡으며 아쟁은 김하린, 해금은 양재은이 연주한다.

이어 ‘Tune for us’, ‘동가’, ‘소쇄한 그리

움’, ‘Moanin’을 비롯해 초연작 ‘참 태평도하다’, ‘You and me’, ‘앗’ 등이 울려 퍼진다. 김거봉이 연주하는 일렉트릭 기타 레퍼토리와 조재희·최민석의 어쿠스틱한 사운드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20일에는 상설 체험과 함께 토요일실공연 연회·무용 무대 ‘전통x현대 온고지신: 춤의 공존’이 펼쳐진다.

콘서트 댄스컴퍼니가 무대에 올라 ‘처음 무’, ‘송화영류교방굿거리춤’, ‘춘앵무’, ‘소고춤’과 ‘한량무’, ‘사랑가’, ‘잔영’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전통문화관 일원에서 ‘토·토·전!’이라는 슬로건으



나뉘에 보헤미안소극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모습.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 제공〉

로 절기 관련 체험·연회, 민속놀이, 한복체험도 마련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선임명 팀장은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뉘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은 우리 풍류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주 주말에는 탁트린 전통문화관 공연장을 찾아 힐링의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연령제한 없으며 무료 관람.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방개양 작 '몽유도원도'

## 대만서 ‘광주미술갤러리초청전’ 성료 김진남·방개양 등 지역 작가 5명 참여

예술가들은 창작의 고통을 운명적으로 지고 산다. 창작은 새로운 무언가를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흔히 ‘지평을 넘는다’는 표현은 기존의 세계를 딛고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인다는 의미다. 전망이나 가능성을 상징하는 말로,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곧잘 비유되거나 인용된다.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회장 박광구·이하 광주미협)이 올해도 지평을 확장하는 전시를 진행했다.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대만 대상아트스페이스에서 ‘광주미술해외갤러리초청전’을 연 것.

‘지평을 넘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모두 4개국 4개 갤러리가 참여했다. 독일의 가치갤러리를 비롯해 미국 패리스 코 파인아트, 대만 대상아트스페이스, 중국 양겔러리 베이징이 주인공이다. 각 나라에서 5명씩 모두 20명이 참여했으며 광주에서는 김진남, 방개양, 송유미, 윤우재, 임수영 작가가 출품했다.

전시 주제는 동일하지만 대만 전시는 ‘天際之外’라는 부제가 붙었다. ‘하늘 너머’라는 뜻은 결국 지평 넘어라는 의미로 수렴된다. 인식 너머의 세계, 상상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의 세계 등을 포괄한다.

방개양의 ‘夢遊道園圖’는 지상과 천상 어디쯤의 경계를 그린 듯하다. 작가는 마치 하늘 위에서 땅을 굽어보는 것 같다. 발 아래 풍경도 몽환적이지만 하늘 위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작품에선 유유자적 이상 세계를 주유하는 이의 걸림없는 자유가 느껴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마스터피스 에피소드 첫 번째 공연 ‘비상’

‘프로젝트 더 울림’, 13일 ACC 예술극장 극장2

‘프로젝트 더 울림’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관·타악 음악가들이 모인 연주단체다. 이들이 관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한 ‘마스터피스 에피소드’ 시리즈 첫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목을 끈다.

프로젝트 더 울림이 ‘Masterpiece Project Episode I: 비상(飛上)’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공연을 펼친다. 독일 출신의 작곡가 칼 오르프 곡 카르미나 부라나를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구성했으며 안 판 더 로스트, 본 베틀 등의 작품도 울려 퍼진다.

안 판 더 로스트의 ‘울림피카’로 시작하는 공연은 본 베틀 작 ‘클라리넷 콘체르티노 E플

랫장조’로 이어진다. 클라리넷 연주는 서울에 고,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추계예대 교수로 재직 중인 송호섭이 맡는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카르미나 부라나’도 공연장을 수놓는다. ‘오 운명의 여신여’, ‘운명의 상처에 탄식하노라’를 비롯해 ‘춤’, ‘운세상이 내 것이 되더라도’, ‘가장 그리운 남’ 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앞에 놓인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휘봉은 전남대 작곡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현민이 잡는다.

프로젝트 더 울림은 광주문화재단 월요콘서트, 담양 담빛예술창고, 광주아트페스티벌을



공연을 마치고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프로젝트 더 울림’ 모습.

〈에나엔터테인먼트 제공〉

비롯해 5·18광주민중항쟁 41주년 기념연주,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 연주 등을 선보여 왔다. 대인아울시장 콘서트와 전남대 테크페어 개막 행복콘서트 등 지역 공연에도 출연해 이들을 알렸다.

이현민 지휘자는 “주제선율을 복잡하게 전

개시하지 않는 칼 오르프 특유의 반복성에 유념해 지휘할 예정이다”며 “강렬한 선율에 담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위대함’이라는 주제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석 1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